

#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2024

VOL.175

SEPTEMBER + OCTOBER

orig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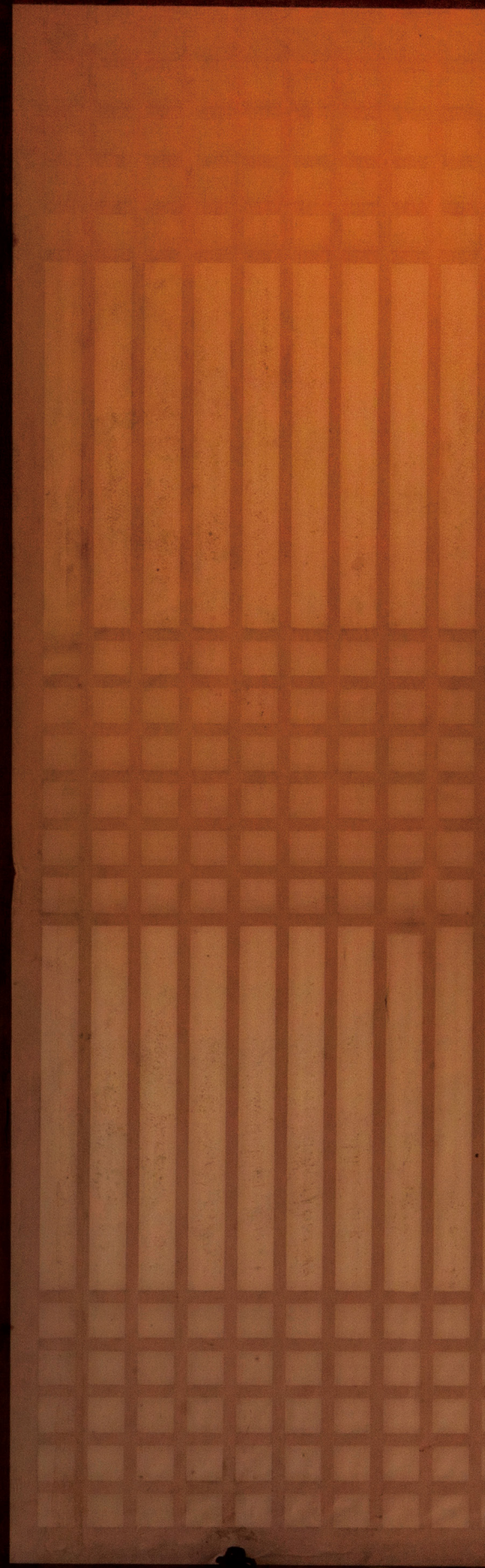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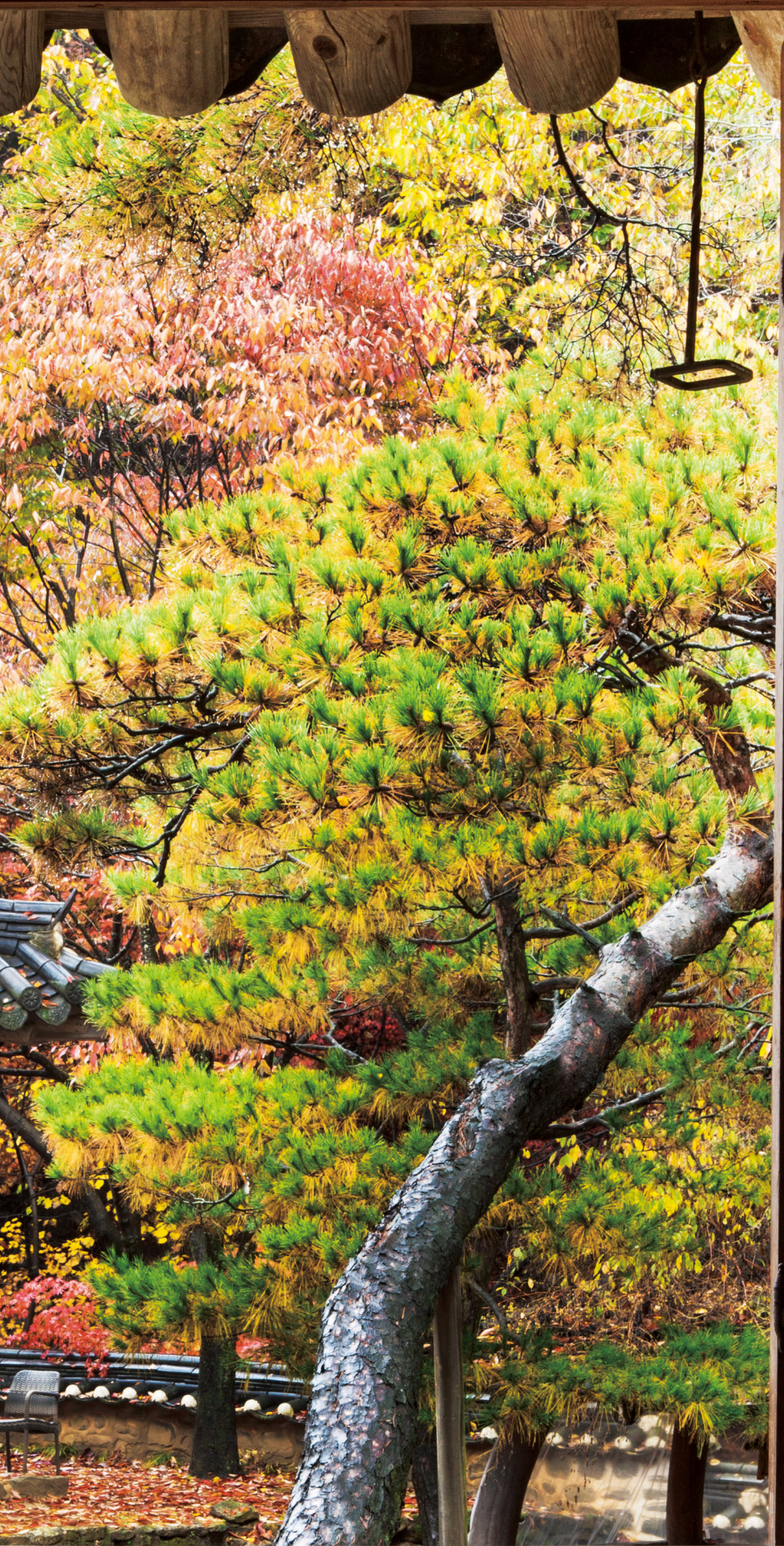
과거에서부터 전래돼 온 것들을 살피다 보면  
어쩐지 ‘은화’하고 ‘푸근’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서로서로 기꺼이 돕고 나누는 마음,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가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안정의 기반이 되는 행위였고,  
우리가 편리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개개인을 고립시키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아직 곁에 남아 있는  
우리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즐기면서 말입니다.





KNF MAGAZINE

# 원자력연료

#

2024  
VOL.175

SEPTEMBER + OCTOBER

## ORIGINS



**발행일**

2024년 9월 11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최익수

**편집실**

소통협력실 042-869-3444

**기획·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 빛나는 KNF

- 06 취임사**  
세계적인 원자력연료  
전문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 10 요즘, KNF는**
- 12 클릭! 인사이드**  
우리나라를 전쟁 후  
폐허에서 구한  
'최초의 원자로' TRIGA Mark-II
- 16 안전 알림이**  
비상대응 조직 체계
- 20 KNF 사람들**  
'우리 것이 좋은 것'  
22사번 동기 네 사람의  
'전통주 빛기' 체험기

## 살맛나는 KNF

- 26 즐거운 섬표**  
섬사람들의 전통적인 삶을 엿보다  
제주도
- 32 지금은 뉴노멀 시대**  
오마카세 열풍 속 떠오른  
'이모·할매·삼촌카셰'
- 36 그땐 그랬지**  
치열하지만 풍성했던  
그 시절의 귀성전쟁
- 38 문화의 발견**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이야기
- 40 문학의 속삭임**  
인생도,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람을 얻는 지혜』
- 42 한글날 이벤트**
- 44 해시태그 이벤트**
- 46 독자 마당**

## CONTENTS

12



20



26



빛나는 KNF  
+  
취임사



## 세계적인 원자력연료 \_\_\_\_\_ 전문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한전원자력연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사를 떠나고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만나 정말 기쁘고,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안희중 위원장님과 노조 집행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KNF 가족이 되신 김대호 감사님,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남찬 전무님, 최재돈 본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KNF 동료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KNF 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의 재무성과를 거두었고, 사상 최초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최대 규모의 해외 수출도 만들어 냈습니다. '사상 최초'와 '사상 최고' 그리고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로 자랑할 만한 성과였고 기록이었습니다.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질 리 없듯, 성과 하나하나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우리의 저력과, 묵묵히 땀과 눈물로 역할을 다하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사가 하나 되어 함께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 DNA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성과는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다 함께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아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정세는 진영 간의 대립으로 신냉전체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지역별·진영별로 블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고비용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영국 노팅엄에 있는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이달 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세계 최초였던 영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화력발전의 축소와 이어지는 에너지소비 전반의 탈탄소화는 원전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연료공급망 구조의 재편 과정은 원전수출산업에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이러한 대내외 여건의 변동성에 잘 대응하고 기회 요인을 포착한다면 KNF는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몇 가지 제안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경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자금은 핏줄과도 같으며 수익은 살과 같습니다. 재무건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어떤 계획과 성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전력그룹사의 재무적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그 충격을 함께 겪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고비용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상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재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투자·자금관리에 대한 체계적 분석, 시장지표와 변동성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출과 공정별 원가관리로 가격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영혁신으로 정책 이행력을 높이고 활력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원전 로드맵을 반영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연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겠습니다.

제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제조시스템의 완성, 제조 현장 디지털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화합과 청렴문화의 완성, 조직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겁고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소통의 리더십을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의 원전 수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글로벌 연료공급망이 재편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정부의 원전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과 의지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UAE 대규모 후속사업 수주로 Track Record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을 마켓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섹터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코리아 협업에 기반한 경쟁력으로 체코를 비롯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사업 확대 기회와 프렌드쇼어링 정세도 적극 활용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R&D 투자로 원자력 기술을 선도하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은 기술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고유연료 모델과 신소재 개발을 완성하고, 안정성과 친환경성 기술개발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신연료 개발을 통해 미래 핵심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R&D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완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의 성격이 R&D 중 D, 다시 말해 Development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Research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Fast Follower로서 입지를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자립과 국산화를 넘어 Global Standard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으로 모두와 함께하는 걸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주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는 정책으로, 그룹사와는 지분으로, 협력사·소비자와는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끝은 사회 모든 이해관계자로 확장되고, 그 중심은 KNF 구성원 서로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연대이고, 실행하는 것이 협력이며, 그 시작은 함께하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KNF 동료 여러분, 24년 한해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올해 초,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기업에서 가장 많이 꼽은 화두는 바로 용문점액(龍門點額)입니다. 등용문 앞에 선 잉어가 용으로 승천하느냐, 문턱에 걸려 다시 물고기로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잘 극복하고 변동성을 잘 활용하여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KNF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하는 걸음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로를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KNF의 새로운 40년을 우리 모두 함께 열어 갑시다.

KNF 가족 여러분, 저를 환영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5일

사장 **김장진**

# NEWS

2024  
Vol.175

## 정창진 신임 사장 취임



우리 회사는 9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창진 사장을 선임하고,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창진 사장은 “경영 혁신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한전원자력연료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원자력연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정창진 신임 사장은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1991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후 요금제도실장, 요금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2021년부터 우리 회사 경영 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고비용 시대 고환율 위험 등 경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으며, 노사 간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노사 파트너십을 견고히 했다.

## 김대호 신임 감사 취임

우리 회사는 8월 27일 신임 김대호 감사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김대호 감사는 취임사에서 “기관 내 면밀한 살핌과 소통을 통해 부조리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김대호 감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외이사와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 September + October



### ‘2024년도 협력 업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추진

우리 회사는 협력 업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도 협력 업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원자력연료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1·2차 협력사 중 중소기업인 14개사를 대상으로, 총 6,180만 원의 지원금을 조성해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에 인원당 2개월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 정규직 인력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민간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CEO의 강한 의지 아래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우리 회사의 성장’이라는 동반성장 비전을 내걸고 이외에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전원자력연료가 되도록 힘쓸 것이다.

빛나는 KNF

+

클릭! 인사이트



우리나라를 전쟁 후 폐허에서 구한

## ‘최초의 원자로’ TRIGA Mark- II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처음 접한 시기는 6·25 이후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였다.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국민 대다수가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던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정부는 전 국토의 부흥을 일으키고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원자력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글: 『원자력 50년, 부흥 50년』(2008, 이광석 책임연구원 외 3인, 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연구원) 요약  
참고: 보도자료 「국내 첫 원자로 TRIGA Mark-II 과학기술 연구시설 최초 문화재 등록」, 한국원자력연구원(2013. 12. 24.)  
사진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

# First Reactor



## 1950~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 ‘연구용 원자로 붐’이 일어났다.



TRIGA Mark-II 원자로 건설 현장(1959. 7. 14.)



TRIGA Mark-II 원자로 기공식(1959. 7. 14.)

### 격동의 시기, 한 줄기 빛과 같던 ‘원자력’

195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회의’가 열렸다. 당시 유엔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라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게 됐는데, 미국은 이 자리에서 원자로에 관한 기술 정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때 쏟아져 나온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의 1,132편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원자력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다양한 주제로 기술제휴와 정보교류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내적으로도 제네바 국제회의는 과학기술에 담혀 있던 우리 국민의 눈을 뜨게 했다. 원자력 붐이 급속히 일어나면서 청년학도들 중심의 연구그룹이 만들어지고, 원자력 관련 세미나도 잇따라 개최됐다. 그러나 원자력이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데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전문가 양성과 연구비 확보 등 원자력 초창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몇몇 초강대국들에 의해 독점되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원자력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었고, 국가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용도로 이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공포됐고, 같은 해 10월과 1959년 3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차례로 문을 열어 원자력 행정기구의 기틀이 마련됐다. 원자력원이 발족하면서 복잡했던 과학기술 행정 관련 절차들이 간소해지고 보다 효율성 있게 바뀌었다.

### ‘전 세계 연구용 원자로 붐’ 한국형 원자로를 찾아서

2차 대전이 끝난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여러 타입의 원자로가 개발되면서 1950~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연구용 원자로 붐’이 일어났다. 최초의 원자로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42년 12월, 우라늄 핵분열과 제어에 성공한 엔리코 페르미가 사용했던 실험용 원자로 CP-1(Chicago Pile-1)이었지만,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한 플루토늄 생산로 타입이었다. 그러나 이후 순수연구용 원자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세계 각국에 원자로 건설을 장려하며 기술 원조뿐만 아니라 핵연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많은 나라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원자로를 도입했지만, 정작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경제적·기술적 수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원자력 운영능력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의지를 꺾지 않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자로형을 찾기 위해 1958년 8월 조사단을 직접 미국으로 파견했다. 조사단은 캘리포니아 라호야에 위치한 GA를 방문해 원자로 설계 개념과 제작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1958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33만 1천 달러에 GA와 100kW TRIGA Mark-II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제1호 원자로가 결정된 순간이었다.

### 국가의 미래와 새로운 연구를 위해 팔 걷고 나선 젊은 과학자들

TRIGA는 Training(훈련), Research(연구), Isotope-production(동위원소 생산), General Atomic의 머리글자를 딴 합성어이다. 즉 훈련, 연구, 동위원소 생산이 필요한 우리의 목적에 부합했고, 핵연료 물질인 UZrH가 우수한 고유안전 특성을 갖고 있어 제1호 연구로로 가장 적합했다. 1959년 1월 미국이 TRIGA 도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35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원자로 설치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자로 TRIGA Mark-II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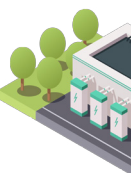
원자력연구소가 문을 연지 4개월 만인 1959년 7월, 원자로 기공식이 거행됐다. TRIGA Mark-II는 열출력이 100kW밖에 되지 않는 연구용 원자로였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연구시설이었다. 이는 젊은 과학자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외국에서 훈련받고 돌아

온 연구원들이 새롭게 발족한 원자력연구소에 합류해 연구로 건설에 나섰다. 그때 주축이 된 6인의 과학자들(양홍석, 이관, 이창건, 장지영, 정운준, 한봉희)은 1959년 봄, 미국 알곤연구소 부설 국제 원자력 과정 제8기 수료 후 산업 시찰에 나섰다. GA의 TRIGA 원자로 운전훈련을 받고 오라는 정부의 지시를 받고, 2개월 동안의 훈련 끝에 미국 원자력위원회(AEC)의 TRIGA 원자로 운전면허증을 받고 귀국한 상태였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 운전면허 소지자들이었다.

### 국내 첫 원자로, 'TRIGA Mark-II'의 탄생

원자로가 무사히 점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GA로부터 공급받은 원자로의 설계·엔지니어링, 건설감리 등은 미국의 'H&N'이, 시공은 서독에서 콘크리트 기술을 도입해 원심압박법에 의한 전주 제조로 알려진 국내 건설 회사 '중앙산업'이, 원자로 건물 설계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던 건축가 김종업이 맡았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 김종업 건축가는 2개월간 미국 시찰을 다녀왔다. 원자로 건물은 여러 가지 특수한 설계를 요구할 뿐 아니라 차폐, 오염 제거 등의 설계가 매우 중요해서 미국의 여러 원자력 시설을 직접 살펴봐야 했기 때문이다.

1960년부터 원자로의 설치 공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소 인력이 참여했다. 이때 연구원들은 나중에 고장이 나도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도록 부품 하나하나와 설치 절차의 연결 상태를 일일이 스케치하면서 공사에 참여했다. 원자로실의 크레인 설치 공사에는 당시 공학 분야를 선도했던 이병호 교수가 참여했다. 공기조화계통은



가동 당시 TRIGA Mark-II



제염 해체 작업 중인 TRIGA Mark-II(2013. 12)

# TRIGA Mark-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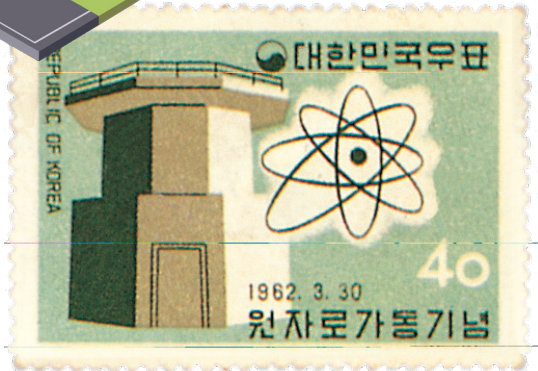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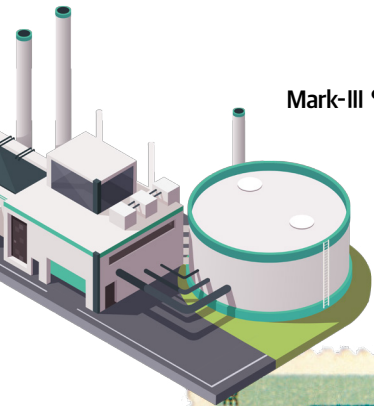
연구로 1호기 위에서 열출력 100kW 시험 성공을 축하 중인 연구원들(1962. 3. 26.)

## <TRIGA의 세대별 용량 차이>

Mark-I 열출력 **10kW**

Mark-II 열출력 **100kW**

Mark-III 열출력 **1000kW**



연구로 1호기 가동 기념 우표


김효경 교수가 설계, 시공, 감독을 도맡았다. 원자로 건설공사가 차츰 진척되면서 GA에서 실려 온 원자로 탱크 용접과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GA는 원자로 계통만 공급하기로 돼 있어서 2차 계통인 배열 계통은 이관, 장근수 두 학도가 건물 밖에 냉각탑을 설계하고 설치함으로써 자력으로 해결해 냈다.

1962년 3월 19일 10시 50분에 역사적인 핵연료 장전시험이 시작됐다. 그리고 오후 4시 52분에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했다. 이어 며칠간 제어봉 반응도 측정, 출력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3월 23일, 마침내 100kW의 정격 열출력에 도달했다. 3월 30일 원자로 준공식은 그야말로 국가 경사처럼 치러졌다. 정부는 이날을 대대적으로 경축하기 위해 기념우표도 발행했다.

## 근현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제1호 원자로'

TRIGA Mark-II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방사성동위원소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가능해지자,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기초 연구 분야에서 중성자속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67년부터 100kW를 250kW로 증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제2연구로 건설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이 계획은 1969년 6월 24일 성공적으로 완성됐다.

TRIGA Mark-II는 1995년 1월 가동이 정지될 때까지 33년 동안 원자로 계통 설비 및 시스템 연구 등과 같은 원자력 특성 연구에 활용되며 원자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연구로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립에 이바지했다. 연구로 하나로(HANARO)자력 설계 및 건조(1995년), 우리나라 사상 첫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인 요르단 연구로(JRTR) 건설 사업 수주(2009년) 등이 성과로 손꼽힌다. 또한 원자력 기술요원 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등에 이용돼 우리나라 원자력 기초 기술 발전에 공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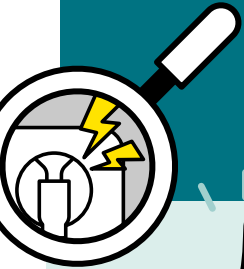
TRIGA Mark-II는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준공·가동되면서 활용도가 감소해 1997년 제염(오염 제거) 및 해체 작업, 2007년 부속시설 및 주변 시설 해체, 2014년 방사화된 내부 구조물 제거를 거쳐 현재는 서울 공릉동에 기념 모형으로 남아 있다. 2013년에는 산업사 및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근현대 과학기술 '연구시설'로는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빛나는 KNF  
+  
안전 알림이



# 비상대응 조직 체계

우리 회사에서는 사내에서 화재·폭발, 유해가스 누출, 방사선 비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대응 조직의 체계와 비상대응 요원의 주요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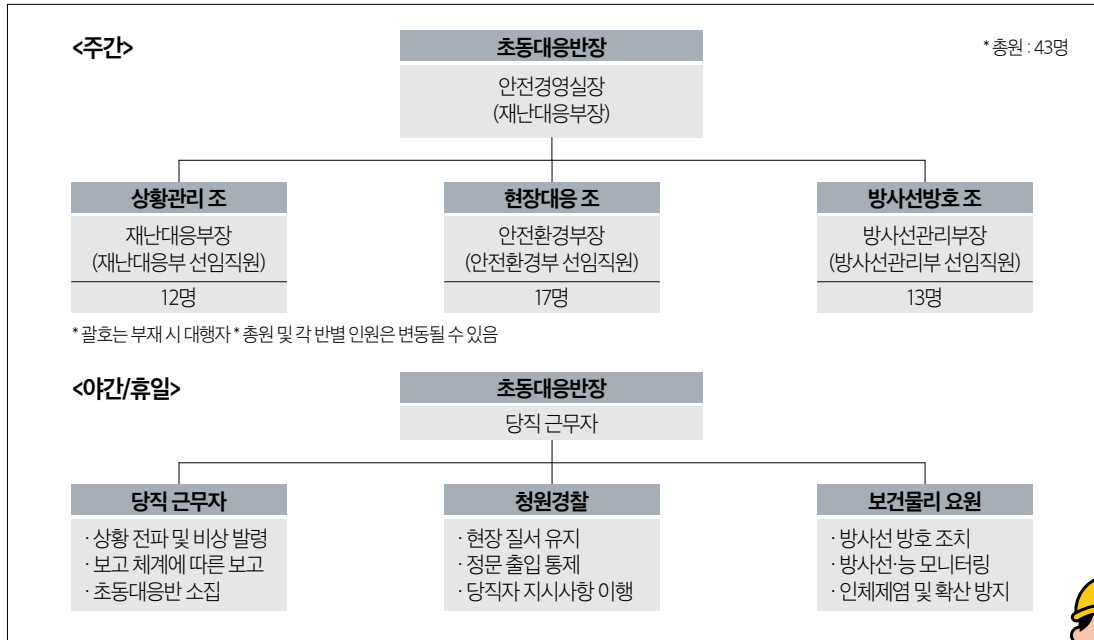




# 1. 비상대응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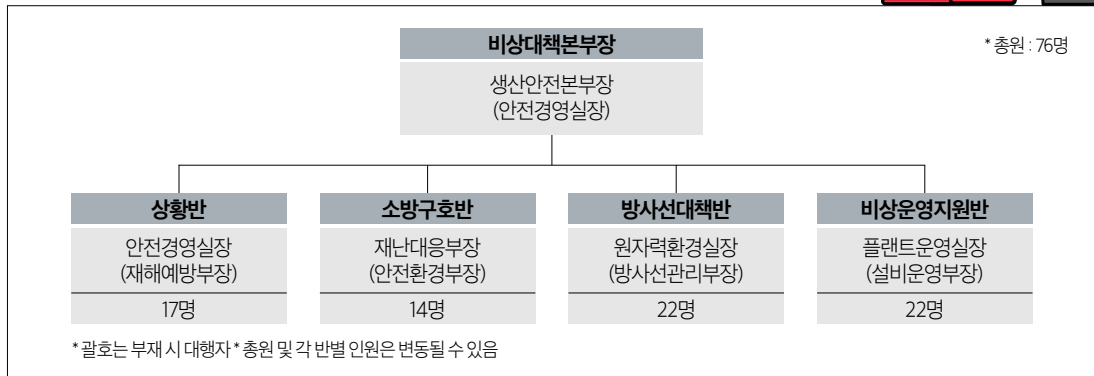
## 초동대응반

- 목적: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 가동 시기: 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 즉시(비상대응 조직 가동 전)
- 주요 임무: 초기 지휘 통제, 대내·외 상황 보고, 인원 대피 및 수색, 방사능오염 확산 방지(관리구역 내 사고 경우) 등



## 비상대응 조직

- 목적: 비상상황 발생 시, 개인별 임무 전담으로 체계적인 비상대응 임무 수행
- 가동 시기
  - 1) 재난안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 발생
  - 2) 방사선 비상계획서에 따른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
  - 3) 사내 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으로 비상대응 조직 구성이 필요할 경우
- 주요 임무: 비상대응 및 복구 활동 전반





## 2. 비상대응 요원 주요 활동

비상대응 요원은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 비상대응 요원의 주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비상대응 요원 역량 강화 필요성

- 현장 중심의 비상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비상대응 요원의 안전·재난 인식 향상을 통한 비상대응 준비태세 확립
- 조직 변경 등을 반영하여 비상대응 요원을 주기적으로 재편성(약 3회/년) 하고 있으며, 신규·임무 조정 비상대응 요원의 개인 임무 숙지를 위한 주기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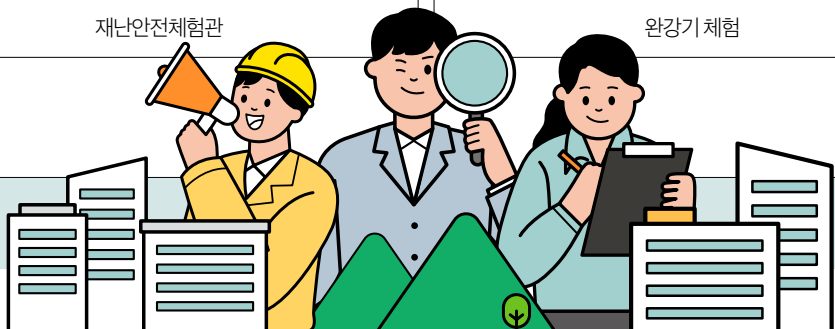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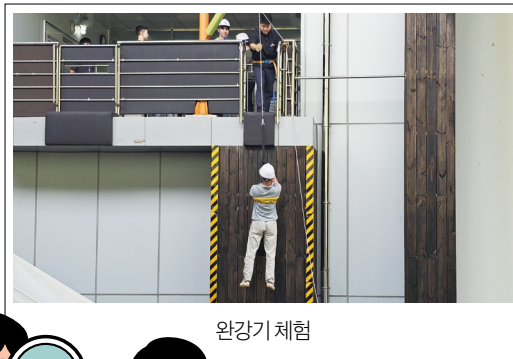
### 비상대응 요원 워크숍

- 목표: 비상대응 요원 및 비상대응조직 간 소통·팀워크 향상  
비상대응 요원의 자긍심 및 소속감 고취
- 내용: 핵연료3동 방사능방재 최초 훈련 결과 점검, 간담회, 설문조사 등



### 비상대응 요원 재난안전 체험 교육

- 목표: 재난안전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대응 능력 향상
- 내용: 화재 대피 4D 체험, 연기탈출 체험, 완강기 체험, 지진 체험 등





### 비상대응 요원 법적 교육 및 전문 교육

- 목표: 방사능방재 법적 사항 이행 및 전문 방사선 비상진료 요원 양성
- 내용: 방사능방재 신규/보수 교육, 방사선 비상진료 전문 교육



방사능방재법령 이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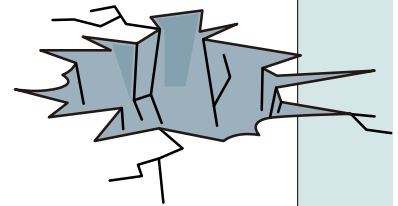
오염환자 응급처치

### 유관 기관 훈련 참관 및 협의회 등 정보 교류

- 목표: 유관 기관 비상대응 협조 체계 구축 및 다양한 비상대응 경험
- 내용: 방사능방재협의회(상·하반기), KAERI 하나로시설 합동 훈련 참관

### 비상대응 훈련 실시(연간 12회)

- 법적 훈련[2회]: 방사능방재 부분 훈련 및 전체 훈련
- 자체 훈련[4회]: 위기대응 시스템 운용 훈련, 불시응소 훈련, 비상대피 훈련
- 공정 부서별 훈련 연계[6회]: 분말 누출, UF6 누출, 지르코늄 발화 등



비상대책본부 운영



비상대피 훈련

## 3. 맺음말

작은 사고 및 비상상황이라도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면 그 여파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의 비상대응 요원은 본 업무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비상대응 요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상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비상대응 요원에 관심 있는 직원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연락주길 바란다.

빛나는 KNF  
+  
KNF 사람들

## ‘우리 것이 좋은 것’ 22사번 동기 네 사람의 ‘전통주 빚기’ 체험기

오늘 참여자 중 한 명의 말을 빌리자면, 전통이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낸 것’이라 한다. 실로 수많은 문화 사적들이 갖은 어려움을 견디고 가치를 증명해낸 끝에 우리 곁에 남을 수 있었다. 전통주도 그중 하나다. 단순히 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조 이유부터 만드는 과정, 쓰임, 보관 방법까지 조상의 지혜가 오롯이 녹아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다.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22사번 동기 네 사람이 뭉쳤다.

글. 박예나 사진. 고인순



# 전통

## 옛 배움터에서 '전통주 빚는 법' 배우기

우리가 시중에서 사서 마시는 막걸리에서는 '신맛'이 나지 않는다. 단시간 내에 제조하고 판매하려는 목적성을 가진 시판 막걸리는 '발효' 과정을 생략하고 중균을 배양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맛 또한 아스파탐, 울리고당 등의 첨가제가 결정한다. 반면, 발효제 역할을 하는 누룩이 들어간 전통 막걸리에서는 '신맛'이 난다. 빚는 과정에서 발현된 젖산균(유산균)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맛이다. 신맛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이유다.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맛이니 말이다.

오늘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네 사람이 만들 전통주에도 오로지 물과 누룩, 찹쌀만 사용된다. 찹쌀로 단맛을 내고, 추후에 발효가 되면 새콤한 맛이 가미된다. 누룩은 네 사람을 위해 특별히 밀누룩과 쌀누룩이 함께 마련돼 있었다. 예부터 귀한 술을 빚을 때 두 가지 누룩을 혼합해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쌀누룩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한층 풍성해지는데 반가운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미리 주령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었다.



‘전통주 빚기’ 강연은 충청 지역의 전통 술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 미리 주령사의 주재 하에 송현서원 내 입교당(立敎堂)에서 펼쳐진다. 조선시대에 향교가 국립학교라면, 서원은 사립학교였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공부하기 위해 송현서원을 많이 찾았단다. 입교당은 당시 학생들이 교육받던 공간으로, 오늘 일일 수강생이 된 네 사람도 학생의 마음가짐으로 입교당 안에 앉았다.

평소 술을 즐겨 마신다는 네 사람은 전통주를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이 자리를 신청했다. 특히 ‘만드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높았다. 최영환 직원은 “전통주 특유의 맛과 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세밀한 궁금증을 드러냈고, 권기환 직원은 “직접 만드는 경험을 해본다면 전통주 각각의 개성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풀어주고 붙여주며’ 본격 만들기에 뛰어든 네 사람**

이미리 주령사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앉았다. 본래 술 빚기는 쌀을 씻고 밥을 짓는 것부터가 시작이지만 늦더위로 무더웠던 탓에 그 과정을 온전히 해내는 것이 초보 수강생들에게 버거울까 싶어, 이 주령사가 직접 찹쌀 4kg을 불리고 찌서 고두밥으로 만들어 왔다. 각 두 사람 앞에 마련된 넓적한 볼(bowl) 안에 물과 누룩, 고두밥을 담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풀어주는 작업을 한다. 각각 편한 손 한쪽을 손바닥이 보이게 펼친 후 볼 가장 하단에 넣고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만 살살 움직여 주는 것이다. 쌀알이 깨지지 않게 풀어주는 방법이란. 만약 거칠게 움직여 쌀알이 많이 깨지면 술이 제대로 발효되기 어렵다.



최영환&김창욱 직원 콤비가 먼저 실력을 뽐냈다. 쌀알이 잘 풀어진면서 물을 야금야금 먹었는지 찰랑이던 물이 현저히 줄어들고, 곱게 불어난 쌀과 누룩으로 볼이 채워지고 있었다. 이 주령사도 잘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재주는 없지만(?) 평소에도 요리를 즐기는 편이라던 김창욱 직원의 실력이 십분 발휘된 게 아니었을까.

쌀이 어느 정도 풀어진면 누룩이 보글보글 반응한다. 이때 쌀과 누룩과 물을 접착해 주는 ‘혼화’ 작업에 들어간다. 손을 달걀 한 알을 칠 것처럼 오목하게 웅크린 후 뒤집어(앞 작업과 반대로 손등이 보이게), 살짝 분 쌀알과 누룩을 살살 눌러주는 것이다. 두 사람이 속도를 맞춰 한 방향으로 1cm 단위로 촘촘히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볼을 천천히 돌리며 눌러줘야 한다. 주의할 점은 절대 눌러서 밀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도 쌀알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혼화 작업이 전체 과정 중





### Information

#### 노산춘

위치: 유성구 엑스포로 488

클래스 구성: 전통주 체험, 발효 체험, 문화재 체험, 시음·시연회 등



**혼화 작업이 전체 과정 중 가장 오래 걸린다.  
힘들고 지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오래 걸린다. 베테랑들도 통상 1시간을 들여 하는 작업이라고. 힘들고 지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한다.

그래도 두 사람이 합세하니 들이는 힘이 반절로 줄고, 지루함도 덜어진다는 이점이 있다.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갈 순 있겠지만 뭐든지 같이 하는 게 더 즐거운 밥”이라는 강동연 직원의 말이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내겐 무엇이 더 잘 맞을까?”



10분 이상 이어지는 섬세한 노동에 이미리 주령사가 직접 만든 전통주를 꺼내 들었다. 이름하여 ‘노동주’다. 노동의 노고를 달래고, 잠시 쉬어가기 위해 마시는 술. 새콤달콤하고 걸쭉한 탁주와 18~19도에 달하지만 목 넘김이 부드러운 약주를 소량씩 나눠 줬다. 향을 꼭 먼저 맡아보고 마시라는 이 주령사의 말에 따라 다들 소물리가 된 듯 잠시 향을 맡은 후 천천히 삼키며 음미했다. 오롯이 쌀로만 빚어야 만날 수 있는 귀한 맛과 향이었다.

노동주에 탄력을 받았는지 이전 작업에서 고전하던 권기환&강동연 직원 콤비가 활약하기 시작했다. 20분이 넘게 이어지는 반복 작업에도 끄떡없이 성실히 해나가고 있던 것. 막간 밸런스 게임(현대 vs 전통)에서 ‘전통’을 외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전통주 빚기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





오늘 네 사람이 만든 술은  
찰쌀동동주로, 다른 말로는  
‘부의주(浮蟻酒)’라 한다.

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주령사도 술이 맛 있게 나오겠다는 말을 엿었다. 반면, 최영환&김창욱 직원 콤비는 점점 지쳐가는지 밥알이 볼 안팎 여기저기로 굴러다녔다. 밸런스 게임에서 유일하게 ‘현대’에 대한 선호를 표하며 “어쩔 수 없이 현대의 ‘편리함’에 빠진 것 같다”던 최영환 직원이 전통식 노동에 가장 쉽게 무너진 건 아닐까. 최 직원이 ‘편리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직원들은 전통이 주는 ‘편안함’에 목소리를 모았다.

“전통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어쩐지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기분이에요. 현대 사회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생각만 해도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건 굉장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강동연 직원의 말에 김창욱 직원도 맞장구쳤다. “저도 근래에는 도심보다는 남원이나 부여 같이 고요하면 서도 여전히 옛 건물이 남은 곳들이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발효와 숙성의 맛’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했던가. 이미리 주령사가 40도가 넘는 전통주도 경험해 보라며 추가적인 시음을 권했다. 뜨끈하게 목을 태우며 열을 한껏 돋울 것이 자명한데도 모두 흔쾌히 받아들였다. 특히 최근 들어 위스키와 같은 고도수의 술을 찾기 시작했다는 권기환 직원은 40도가 넘는 약주가 마음에 든 기색이 역력했다. 거듭 “다시 한 번 맛보고 싶다”는 눈에 보이는 재간을 부리는가 하면, 구매 문의까지 했으니 말이다. 오늘 네 사람이 만든 술은 찰쌀동동주로, 다른 말로는 ‘부의주(浮蟻酒)’라 한다. 나중에 술이 익으면 쌀알이 동동 떠다니는데 이 형상을 보고 ‘동



동주' 또는 개미의 유충이 떠있는 것 같다 하여 떠다닐 부(浮)에 개미 의(蟻)를 붙여 부의주라 부른 것이다. 이는 비록 40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12~15도에는 달할 것이라 한다. 시판 막걸리에 비하면 두 배를 웃도는 도수니, 가벼이 즐길 만한 술은 아니겠다. 게다가 전통주는 유통기한이 없어 숙성 잠재력이 충분하고,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맑아지고 도수는 높아진다고 하니, 아마 권 직원이 가장 늦게 개봉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혼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2L 크기의 다용도 플라스틱 통에 각각 나눠 담았다. 남은 작업은 각자 집에서 이어진다. 열흘에 걸친 발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액체로 짜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느낌의 미학이다. 전



통이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지는 법이 없다. 언제나 지대한 노력과 지극한 정성이 동반된다. 그래서 견고하고, 깊이가 있다. 발효되는 동안 네 사람은 매일의 변화를 이 주령사에게 공유하고 소통하며 안내에 따르기로 했다. 발효를 마친 후에는 재량껏 숙성 기간을 가진다. 짧을수록 달달하고 톡 쏘는 동동주를 맛볼 수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맑고 높은 도수를 즐길 수 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들여 같은 재료로 함께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제각각 다른 맛이 나올 거라는 이 주령사의 말마따나 과연 어떤 개성과 깊이가 담긴 동동주를 완성할지 기대된다. 겹말은 안주를 발견한 어느 날, 네 사람 이다시금 모여 맛을 견주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본다. **KNF**

### mini interview

## 동료와 함께해 본 전통주 빚기 체험, 어떠셨나요?



#### 디지털총괄부 강동연 직원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더워 계셨던 분들 모두 고생하셨지만, 원래 고생하면 기억에 더 잘 남듯이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전통주'에 대해 다소 무지한 편이었는데, 감사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시설운영부 권기환 직원

무덤긴 했지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간 형들, 감사님을 비롯해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 모두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면서 먹고 마시는 경험은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환경부 김창욱 직원

우선 바쁜 시간을 내서 함께 추억을 쌓아 준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나의 값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재료와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느끼며 음식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한 체험이었습니다.



#### 품질기술부 최영환 직원

평소 술을 즐겨 마시긴 해도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만드는 과정부터 만드시는 분이 어떤 생각으로 주도하시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전통주를 마실 때 오늘의 분위기가 항상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살맛나는 KNF

+

즐거운 심포

섬사람들의  
전통적인  
삶을 엿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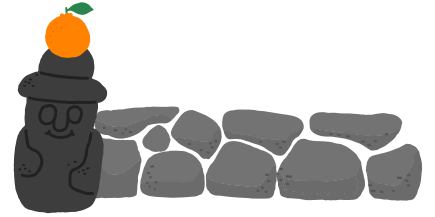


# 제주도

돌이 지천에 널렸다. 발을 일구려면 돌부터 거둬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축자재에서부터 민간신앙까지 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제주도. 울퉁불퉁한 생김새에 구멍이 숭숭 뚫린 거무칙칙한 현무암이 제주의 돌이다. 이 돌들을 활용한 독특한 돌 문화가 있는 제주를 찾았다.

글·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푸른 여백의 아름다움, 꽃자왈**

2006년 6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문을 연 제주돌문화공원.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가장 제주다운 곳이다. 공원의 면적은 96만 9,731㎡에 달한다. 6만 6천여 명 이상을 수용하는 서울 월드컵경기장(21만 6,712㎡)보다 4배 더 넓다. 그 가운데 70%는 꽃자왈 지대다. 꽃자왈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곳으로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이다. 꽃자왈은 나무·덩굴·식물·암석 등이 어수선하게 뒤섞여 수풀이 우거진 곳을 일컫는 제주도 사투리다.

매표소를 지나면 곧이어 산책로를 따라 꽃자왈이 펼쳐진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나무가 무성하다. 한때 버려진 숲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제주의 허파라 불릴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을 큰 화폭에 그렸다면 온통 푸른 색깔로 여백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 이런 까닭에 꽃자왈을 ‘공원의 푸른 여백’이라 부른다. 숲길은 아늑하고 깊으며 품이 넓다. 그 품에 환경부 지정 희귀식물로 분류된 양치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개가시나무, 천랑금, 붓순나무 등이 자생한다. 자연의 보고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니다.

공원 주변에는 높고 낮은 오름들이 초가지붕처럼 봉긋봉긋 솟아 있다. 그 한가운데 자리한 이곳 꽃자왈은 제주 중산간에 위치한다. 이런 지리 지형적 특수성 덕분에 꽃자왈은 중산간을 거쳐 해안선까지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완충지 역할을 한다.

네이 혼한 제주도에서는 동자석을 세워 소원을 빌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높고 낮은 여러 오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속 왼쪽 언덕이 오름이다.



###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듯 돌이 작품이 되다

곳자왈 숲길을 벗어나면 노출 콘크리트 양식으로 지은 건물이 보인다. 얼핏 봐선 박물관처럼 보이지 않는 이 건물은 '하늘연못'이라 불린다. 이름처럼 지름 50m의 수조엔 하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계절 항상 물이 가득 차있다고 하니 산중 호수라 불러도 괜찮겠다.

박물관은 하늘연못 지하 3층 건물로 돌 갤러리, 제주 형성 전시관, 영상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나뉜다. 이중 돌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이 꽤 볼만하다. 기묘한 형상의 돌들이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듯 전시돼 있다. 두꺼비를 닮은 돌, 독수리를 닮은 돌, 기도하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돌 등 무생물인 돌이 생명체로 변한 것 같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한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 떠오른다. 돌과 같은 무의미한 것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자 그 어떤

예술품보다 훌륭한 작품이 됐다. 자녀와 함께라면 지구의 역사와 제주도의 생성 과정, 현무암과 주상절리 등이 생겨난 과학적 자료를 챙겨보는 것도 잊지 말자. 지구과학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을 나서면 산책로가 이어진다. 산책로는 모두 세 코스. 그중 으뜸은 '신화의 정원'이라 불리는 제1코스다. 돌하르방 군락을 지나 오백장군 갤러리와 어머니의 방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오백장군은 한라산과 360여 개의 오름을 비롯해 우도, 마라도 등 부속 섬들까지 모두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의 자식들이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에 얽힌 전설은 이렇다. 하루는 할망이 배고픈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다 실수로 술에 빠져 죽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들들은 죽을 맛있게 나눠 먹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들들은 자책감에 한라산의 영실기암이 됐다라고 한다.

기묘한 형상의 수석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바람이 숨숨 통하는 제주 전통 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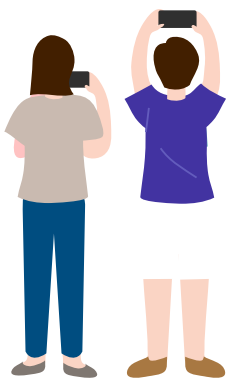
가옥 전면에 설치된 달가지붕을 내려 강한 햇볕을 막고 있다.

**성곽민속마을 입구에는  
돌하르방이 지키고  
있어 제주만의 특별한  
풍경을 자아낸다.**

각각의 코스는 1km 이내로 세 코스를 모두 돌아봐도 2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코스 구간마다 동자상이나 돌하르방 같은 돌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도 살펴볼 수 있다. 인공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음식이 몸에 좋듯, 자연이 만들고 숙성시킨 돌 작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여행이 될 것이다.

**돌하르방이 반기는 성읍민속마을**

조선시대 제주는 3개의 현으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성읍민속마을은 동쪽에 자리한 정의현에 속한다. 마을이 위치한 이 일대에는 북쪽 영주산과 높낮이가 서로 다른 오름들이 마을을 포근하게 품어 주고, 한라산에서 발원한 천미천이 마을을 가로지른다. 마을을 둘러싼 성곽 주변은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화사한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이다. 성곽은 육지의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마을 입구에 돌하르방이 지키고 있어 제주만의 특별한 풍경을 자아낸다. 제주 전통가옥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돌하르방이 부리부리한 눈매와 불뚝 튀어나온 배, 두툼한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한다. 돌하르방의 본디 이름은 '우석목(偶石木)' 또는 '우중석(翁仲石)'이었다. 정낭(제주의 전통가옥에서 대문 역할을 하는 것)을 세우는 기둥인 동시에 육지의 장승처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했다. 돌하르방이란 이름은 1971년 문화재 등록 당시 채택된 이름이다. '돌'과 할아버지를 뜻하는 제주 방언 '하르방'이 합쳐진 것이다.



### 제주의 집에서 순응을 배우다

제주 사람들은 바람과 돌이 많은 자연환경을 극복해야 했다. 그 결과 제주만의 독특한 가옥이 탄생했다. 짙 대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억새풀을 엮어 지붕을 이었다. 용마루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바람이 지붕을 타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유선형으로 만들고 새끼줄을 그물 모양으로 엮어 지붕을 단단히 고정했다. 그 끝에는 돌맹이를 매달았다. 가옥 전면에 설치한 달개지붕도 제주만의 특징이다. 이는 일종의 차양(遮陽)같이 처마 끝에 지붕을 덧붙인 것이다. 난방 방식도 육지와 다르다. 먼저 부엌 아궁이에 땀감을 넣어 불을 붙이지 않는다. 별도의 난방 장치인 '굴목'을 이용하며, 땀감으로는 장작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말린 소똥이나 말뚝에 지푸라기로 불을 지펴 방을 데운다.

제주에는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삼다도'인 동시에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삼무도'였다. 거친 섬 환경에서 생존해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특별한 근면·절약·상부상조 정신이 한몫했기에 거지가 없었다. 또한 섬이라는 특수성은 이웃 간에 부도덕한 짓을 하면 섬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회 구조였으므로 도둑이 없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대문이 필요 없고 돌담은 낮다.

제주에는 대문 대신 집 입구에 긴 나무를 걸쳐놓아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외부인에게 알려준다. 이 나무를 '정낭'이라 부른다. 정낭이 모두 내려져 있으면 집에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가 걸쳐 있으면 집주인이 잠시 집을 비웠고, 두 개가 걸쳐 있으면 오늘 중으로, 세 개는 며칠 뒤에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낭 세 개가 모두 걸쳐 있으면 며칠 동안 집이 비어 있으므로 이웃들이 가축과 집을 돌봐준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무언의 소통 방식이다.

###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된 해녀의 고향, 제주

제주도에서 해안이 가장 길다는 하도리마을은 그만큼 바다도 넓어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해녀도 가장 많은 곳이다. 이 마을에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제주해녀박물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해녀박물관인 이곳에는 제주해녀의 생활풍습과 무속신앙, 세시풍속, 해녀 공동체 문화 등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전시해 놓았다.



용마루가 없는 제주도 전통가옥들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



물질을 마친 해녀에게서 설문대할망의 역척스러움이 느껴진다.

#### travel information

- ① 주소 돌문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④ 문의 064-710-7733~4
- ② 주소 성읍민속마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⑤ 문의 064-710-6797
- ③ 주소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⑥ 문의 064-782-9898



해안가 불턱은 해녀들이 쉬면서 공동체를 형성한 곳이다.

## 제주는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삼다도'인 동시에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삼무도'였다.



하늘연못 박물관 주변에 오백장군 갤러리가 펼쳐진다.



실내 전시실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실제 살았던 전통가옥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섬사람들이 이용하던 전통 배 태우,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 해녀가 사용하던 수경, 수심을 조절하는 연철과 연철조끼, 바위에 붙은 전복을 떼는 빗창, 부력도구인 테왁 등 모두 해녀들이 기부한 것이다. 둥그스름한 원 형태의 돌담을 쌓은 '불턱'이 눈길을 끈다. 어른 허리 높이까지 돌을 쌓아 올린 이곳은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딸에게 대물림되는 열린 작업공동체 장소다. 해녀들은 여기서 불을 피워 몸을 녹였고 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며 소통했다. 그러면서 제주해녀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했다. 한마디로 불턱은 제주해녀의 뿌리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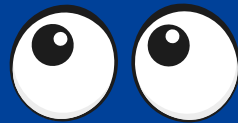
제주도는 무속신앙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섬사람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의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해신당, 갯당, 돈짓당 등은 모두 해안가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당의 일종이다. 모름지기 거친 바다와 함께 살아가야 했던 해녀들과 어촌주민들은 신당에서 생업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제주의 바닷가 마을 소녀들은 열 살이 넘으면 어머니를 따라 바다로 나가 물질을 배웠다. 그 이후 소녀는 평생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야 했다. 누군가에게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인 셈이다.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때론 저항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지혜가 묻어 있다. 그것은 해녀가 숨을 토해내는 숨비소리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KNF

살맛나는 KNF  
+  
지금은 뉴노멀 시대



人心 담은 美食



# 오마카세 열풍 속 떠오른 '이모·할매·삼촌카세'

'전문 요리사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의미의 오마카세가 오늘날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새로운 식문화로 거듭났다. 그중 '이모카세'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노포나 동네 작은 식당의 주인장이 그날그날 다른 한상차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 밑바탕에는 푸근한 인심을 나누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정(情)이 깃든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서적 허기'를 느끼는 2030세대에게 이모카세는 심신을 보듬어 주는 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글 김주희





코미디TV 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브 채널 '홍윤화 김민기 공낭공낭' 썸네일

# Omakase

## 문턱 낮아진 '오마카세'

가성비를 따져가며 식사를 고르는 고물가 시대라지만,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특별하게 즐기는 '금쪽같은 내 한 끼'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를 위한 '최상의 만족'을 실현하고자 값비싼 메뉴에 선택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마카세'다. 오마카세란 '남에게 모두 맡긴다'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로 주방장이 엄선한 식재료로 코스 요리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고가의 일식집이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주로 선보여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다양함' 곳에서 오마카세 식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접근이 쉬워진 데에는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역할이 독특하다. 앱을 통해 오마카세 맛집 정보를 수집하고, 터치 몇 번이면 예약이 완료된다. 절차가 편리해지자 자연스럽게 오마카세를 찾고 즐기는 소비자들도 많아진 것. 인스타그램에서 오마카세 관련 태그는 100만 개가 넘는다. 오마카세 열풍을 이끄는 또 다른 요소는 가성비다.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가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고가의 식사를 즐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5만 원대의 중저가 오마카세 메뉴가 많아지면서 가성비와 가성비를 동시에 충족하는 식문화로 각광 받게 된 것이다.

오마카세의 대중화는 경험에 가치를 둔 소비 심리와도 맞닿아 있다. 일반 식당에서는 정해진 메뉴 안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오마카세는 셰프가 제안하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뜻밖의 식재료나 조리 방법으로 완성된 요리를 즐기는 경험이 이색적인 묘미를 선사한다.

오마카세란 '남에게  
모두 맡긴다'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로  
주방장이 엄선한  
식재료로 코스  
요리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 한우부터 커피까지... 진화하는 오마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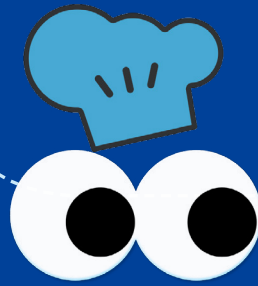
오마카세가 외식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예약도 치열해지고 있다. 맛집으로 소문난 오마카세 집은 고가임에도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 '스강신청(스시+수강신청)'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도 했다. 경쟁적으로 인기 과목을 수강신청할 때처럼 스시 오마카세 예약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렇듯 오마카세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한식, 양식, 디저트 등 다양한 분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시 오마카세를 넘어 세분화되고 있는 것. '우마카세(한우+오마카세)'를 비롯해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바리스타로부터 원두 원산지와 로스팅 방식, 음미방법 등의 이야기를 듣는 '커피카세', 티 소믈리에가 차를 엄선해 제안하는 티 코스 '티마카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외식업계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고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오마카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메뉴의 다양화는 물론 시각적인 요소 강조, 인터랙티브 요소 극대화를 통해 다채롭고 흥미로운 스타일로 진화하는 중이다.

### 푸짐한 손맛의 한상차림, '이모·할매카세'의 등장

오마카세 열풍에 힘입어 '이모카세' 또한 주목받고 있다. 식당 사장님을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데서 파생된 이모에 오마카세에서 따온 '-카세'를 더한 말로, 노포와 포장마차의 이모님이 알아서 상을 차려주는 방식인데, 일종의 "이모가 알아서 줄게"로 통한다. '할매카세', '삼촌카세', '아재카세'도 같은 맥락이다.

이모카세는 고가의 음식도, 시각적으로 화려한 상차림도 아니지만 손맛이 깃든 음식과 특유의 정감 가는 분위기, 푸짐한 양이 장점이다. 3~5만 원 선에서 기본 반찬부터 그날그날 가장 맛있는 재료로 완성된 요리를 먹을 수 있다. 한식집에서는 생선구이, 제육볶음, 해물찌개, 파전 등 '육해공'이 한상차림으로 나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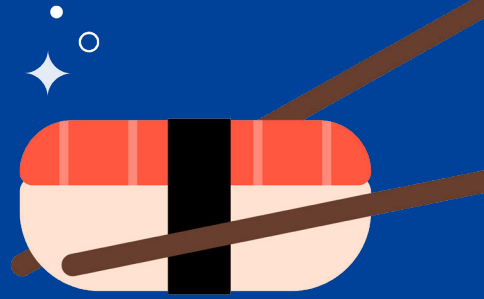
을지로 좁은 골목에 자리한 '오두막'은 원조 이모카세로 알려져 있다. 오래된 한식집처럼 보이지만 최소 한 달, 여유롭게는 두 달 전 예약해야 방문할 수 있는 맛집이다. 1인당 5만 원에 LA갈비, 간장게장, 양념게장, 초무침, 숙회, 전, 탕 등을 내어준다. 성수동 떡도청춘시장에 위치한 '시골집'에는 메뉴판이 없다. 정해진 메뉴 없이 제육볶음, 김치찌개, 닭볶음탕, 모듬전, 달걀찜 등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면 이모님이 시장에서 바로바로 재료를 사온 뒤 딱딱 음식을 만들어 준다.



이모카세는 고가의 음식도, 시각적으로 화려한 상차림도 아니지만 손맛이 깃든 음식과 특유의 정감 가는 분위기, 푸짐한 양이 장점이다.



MBN 유튜브 채널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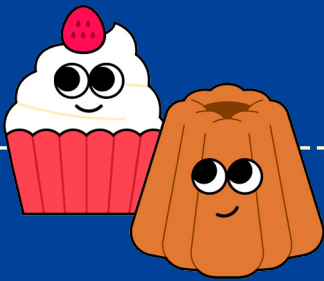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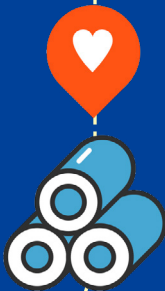
### 정을 나누고 교감하는 뉴트로 문화

평범한 집밥 같은 이모카세 상차림에 MZ세대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모카세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문화다. 기존에는 '실비집', '다찌집'으로 불렸던 식당이 최근에는 이모카세집으로 통한다. 식문화 뉴트로 현상인 셈이다. 이미 실비집, 다찌집을 경험한 기성세대는 복고나 추억으로 인식하지만, 오마카세를 먼저 접하고 이모카세를 경험하는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문화로 다가온 것이다. MZ세대 성장기인 1990~2000년대,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많은 로컬 식당이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바뀌었다. 말끔하고 비슷비슷한 분위기의 식당을 경험하며 자란 젊은 세대에게 허름하고 작은 노포는 추억이 아닌 신선한 자극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이모카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교감'이다. 이모님이 가족들에게 차려주듯 신선한 제철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주고 송덩송덩 김치를 썰어주는 데서 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 왔네", "많이 먹고 모자라면 말해" 등 살가운 대화법에서 정서적 허기까지 채운다. 반찬을 다 먹어갈 즈음 말없이 음식을 푹 얹어주는 투박하지만 단정한 '촌데레' 인심도 매력으로 다가온다. 우리네 할머니나 이모, 삼촌 같은 소통 방식이 2030세대의 흥미를 뚫은 것이다.

메가 트렌드와 반대되는 마이크로트렌드(Micro Trend) 또한 이모카세 인기를 견인한 요소로 손꼽힌다. 시각적으로 눈길을 끄는 감성 맛집을 추구하며 대세에 따르지 않고 유행과 반대되는 것을 선호하는 마이크로트렌드 팔로워들은 SNS 감성 맛집의 반대편에 선 이모카세를 예스러운 면서 힙한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이모카세는 기존의 오마카세 공식에서 비껴나 있다. '고가의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아닌' 정을 나누며 '소통'하는 식문화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정서적 교감에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소비자들로 인해 이모카세 열풍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KNF





대전역  
귀성열차 예매(1990)

### 그리운 고향을 향한 민족 대이동

추석쯤이 되면 해외 여행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는 시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는다. 작년만 해도 추석을 전후한 일주일간의 국내 이동 인원은 4천만 명에 달했으며, 추석 당일에만 약 950만 명이 600만여 대의 자동차에 나눠 타고 전국을 누볐다.

물론 개중에는 국내 여행을 위해 이동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꽉 막히는 추석 연휴의 도로를 타고 여행에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고향을 오갔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타고 자란 바로 그곳은 '서울-부산 8시간 10분'이라는 진 빠지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출발의 발걸음을 땀 수밖에 없는,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그리운 내 고향이다'.

지금도 이러한 정서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니, 산업화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각박한 도시 생활을 선택한 1960~1980년대 젊은이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있어 명절의 고향행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교통망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기에 매우 고단한 연례행사이기도 했다. 마치 알을 품은 연어가 기어코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 또한 어떤 수를 써서든 고향에 닿고야 말았다.

## 치열하지만 풍성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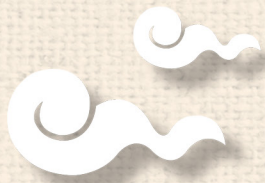


## 그 시절의 귀성전쟁

모든 전쟁은 깊은 상흔을 남기지만 단 하나, 귀성전쟁만큼은 결이 다르다. 가족과의 만남을 위한 행복한 전쟁이기 때문. 교통수단이 열악했던 산업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짐을 짊어진 채 뺨뺨한 버스와 기차에 몸을 실었던 그 시절의 우리들은 패전병처럼 피곤에 절어 있다가도, 고향 풍경이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단숨에 승전병으로 변신했다.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사진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대전광역시






### 귀성을 고되게 만든 열악한 교통편

고속도로는 커녕 국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던 1960년대의 귀성객들은 주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명절 며칠 전에 전국 각지의 귀성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표를 구하지만, 그때는 유선 전화마저도 귀했기에 대도시 주요 역사에는 예매를 위해 사나흘의 노숙마저 불사하는 이들이 수도룩했다. 정원의 3~4배 인원이 탑승하는 통에 시루 속 콩나물처럼 뻥뻥한 상태에서 꿈쩍없이 서서 가야 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눈치 빠르고 운 좋은 몇몇 사람은 짐을 올려놓는 철제 선반 위에 누워서 가기도 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이를 중심으로 지방 도로가 싹틔듯 퍼져 나가자, 마침내 고속버스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했다. 덕분에 더 많은 도시인들이 한결 수월하게 귀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매년 40만 명씩 유입되던 때였기에, 교통편이 빠르게 확충됐음에도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암표를 파는 상인들이 기승을 부렸다. 엄청난 인파에 깔려 다치거나 압사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야말로 전쟁통이 따로 없는 치열한 귀성 행렬을 몸소 목격하고 체험한 기자들은 지금까지도 종종 쓰이는 '귀성 전쟁'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뒤 신문 1면에 앞다퉈 실었다.

### 고생 끝에 누리는 포근한 풍요로움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세로 접어들자, 이른바 '마이카(My Car) 열풍'이 불어닥쳤다. 집집마다 자가용을 샀으니 고향 가는 길이 쾌적해졌을 것 같지만,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도로가 문제였다. 도로 인프라 확충 속도가 자가용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전국의 주요 도로는 명절 때마다 주차장으로 변했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불상사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 거북이걸음에 지친 가족들은 때로는 차에 내려 걷기도 하고, 도롯가에서 밥을 지어 먹고, 도로 넘어 풀숲에서 용변을 해결하며 지나간 귀성길을 감내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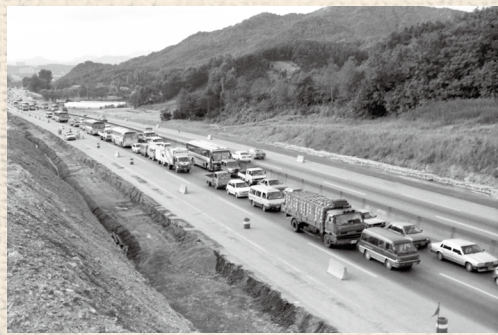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에 기를 쓰고 고향에 달으려고 했던 이유는, 가족과 고향만이 줄 수 있는 푸근함과 풍요로움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한 체온, 팝콘처럼 시시각각 터지는 옛 기억과 웃음꽃, 잔칫날처럼 한 상 가득히 차려진 명절 음식, 집안 어른들이 꼬맹이들에게 쥐여 주는 쓸쓸한 용돈, 멋지게 차려입은 설빔과 추석빔, 부모님이 귀경하는 자식들에게 트렁크 가득 들려주는 손맛 어린 반찬들. 대단한 무언가가 아닌, 소소하지만 풍성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한 고생길'로 이끈 게 아닐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 추석에는 꼭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들려야겠다. 어릴 적 귀성길에서 느꼈던 설렘을 가득 품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과 함께 말이다. 

## 대도시 주요 역사에는 예매를 위해 사나흘의 노숙마저 불사하는 이들이 수도룩했다.

대전 고속버스 첫 운행(1979)



추석 고속도로 귀성차량 행렬(1991)



추석 귀성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서울역 광장(1977)






##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이야기




### 사투리는 못 참지!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방언'을 주제로 기획 특별전을 개최했다. 방언의 말맛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초로 한자리에 모은 것. 나고 자란 지역, 세대, 성별, 속한 집단 등에 따라 구분되는 언어인, 그야말로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방언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 주는 언어적 자산이다. 전시를 통해 방언의 다양성과 가치, 그리고 이를 보전하는 한글의 힘을 발견하고 우리 말글의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

전시

## EXHIBITION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기간: 2024. 4. 19.~10. 13.

 티켓: 무료




### 이천 쌀문화 축제

 이 행사는 우리나라 주식이며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이천의 특산물 '쌀'을 주제로 열리는 종합 문화관광 축제다. 600m 길이의 무지개 가래떡 뽑기와 가마솥에 밥 짓기 행사를 필두로 각종 체험·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있는 것은 물론 알차게 여문 햅쌀을 구입할 수도 있다. 어린 세대는 전통 농경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어른들은 옛 향수를 느낄 수 있어, 그야말로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에 참여해 명절 기분을 내보면 어떨까.

축제

## FESTIVAL

 장소: 이천농업테마공원

 기간: 2024. 10. 16.~20.

 티켓: 무료






자신을 증명하는 수많은 표현 중에 언어와 민족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모두 이를 근간으로 하여 나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이자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자꾸만 희미해지는 우리 문화를 선명하게 비추는 시간을 마련해 봤다.

정리. 편집실



## 다시, 역사의 쓸모

 이 책은 한국사 강사로 유명한 저자가 지난 5년간 새롭게 발굴한 역사의 쓸모를 담은 것으로 '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답했던 전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삶에 역사의 지혜를 들여오는 방법'을 다룬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 이들을 위해 역사에서 찾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가치들을 담아냈다.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삶의 흐름을 찾아주는 그의 통찰을 들어보자.

책

# BOOK




출판사: 프런티페이지



저자: 최태성



## 파친코 2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애플 TV+의 시리즈다. 비극적 역사 속에서도 꽃같이 살아낸 주인공 선자를 중심으로 4대에 걸친 한국 이민 가정의 대서사를 다룬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한 민족사이자 국적과 시대를 넘어 모든 이민 사회의 아픈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2022년 공개된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어떻게 담고 또 풀어냈을지 기대해 본다.

드라마

# DRAMA



감독: 리앤 웰함



출연: 윤여정, 이민호, 김민하 등



공개일: 2024. 8. 23.



• 『사람을 얻는 지혜』 •



이 책은 1601년 스페인에서 태어나 마드리드 궁정에서 철학 강의와 강론을 한,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글이다. 작가는 탐욕과 위선이 판치는 사회에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처세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적을 만들지 않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 등을 일러준다.

• 이선남 실장의 추천사 •



책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사회에 기반을 둔 생활 철학이자, 성공과 행복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싶어 이 책을 소개합니다.



# 인생도,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람을 얻는 지혜』

혼란하다고 느껴질 때면 누군가가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유로 각종 논리를 펼친 철학자들이 종종 소환된다. 그라시안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상가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진 쇼펜하우어조차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칭송할 정도로, 그는 그 어떤 철학자보다도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이선남 실장은 말했다.

Voice. 소통협력실 이선남 실장





‘문학의 속삭임’은 신청을 통해 우리 임직원 중 한 분을 선정, 직접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큐알코드 스캔 후 연동되는 페이지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 호에 선정된 이선남 실장님이 읽어주는 『사람을 얻는 지혜』의 일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1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 2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 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3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없어진다.





한글날 맞이



# 순수 한글 이름 자랑대회



김  
다  
온

뜻

즐겁고 행복한 일들,  
복이 찾아온다

작명 사연

태명이 다복이었고 한 살 터울의 누나 이름도 한글이어서 한글 이름을 찾다가 다복의 뜻과도 비슷한 '다온' 발견! 제 조카 이름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김★경(0025)

최  
아  
라

뜻

'바다'의 순우리말인  
아라

작명 사연

아버지께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과 끝없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라고 바다의 순우리말인 '아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알고 보니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러실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최아라(3605)

한  
다  
올

뜻

다 잘 되길 바란다는  
의미

작명 사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한★우(3698)

이  
바  
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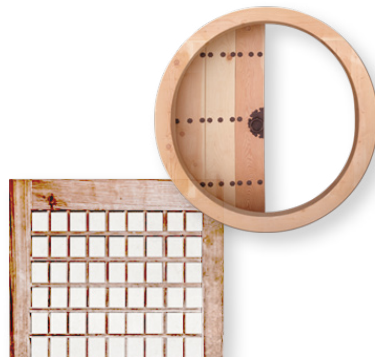
뜻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

작명 사연

부모님께서 그 누구보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바른 길만 걸어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바름(6971)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우리만의 언어가 창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세계화로 우리말보다 외국어 사용이 더욱 흔해진 요즘이지만, 한글날을 맞아 새삼스럽게 한글을 마주하며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엿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한글을 이름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의 사연을 담아봤습니다.



권  
보  
라

뜻

'색깔'의 의미는 아니고,  
불렀을 때 예쁜 이름

작명 사연

권씨 족보와 가문의 문화(?) 때문에 돌림자를 쓰고 있는데, 저희 대손에서는 '학자 돌림'이라 엄마께서 제게는 예쁜 이름으로 평생 불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굳은 의지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 권보라(1161)

정  
가  
람

뜻

강(江)의  
순우리말

작명 사연

제 이름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순우리말이라 한자 돌림에 낄 수는 없겠지만, 형 이름에도 '가'가 들어가서 돌림자로 쓸 겸 순우리말로 지어 줄 겸, 강처럼 흘러가듯이 잘 살아가라는 의미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 정가람(1725)

임  
예  
슬

뜻

'예쁘고 슬기롭게 자라'  
라는 의미

작명 사연

저희 어머니가 우리 한글이 예쁘다고, 딸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셔서 임씨 집안에서 저만 유일하게 한글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임예슬(1746)

박  
예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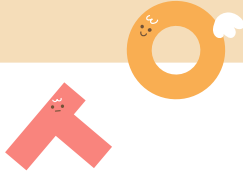
뜻

'예쁘게 자라나'의  
줄임말

작명 사연

90년대가 한글 이름의 전성기였다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글 이름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언니와 제게 한글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언니는 유나(유리처럼 맑게 자라나), 저는 예나가 됐습니다.

- 박예나(5732)



# #한글날



김★영(1605)

- 한** 글을 깨쳐 가고 있는 딸이
- 글** 로 마음을 표현하여 써준 편지를 볼 때면
- 날** 마다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김★미(4443)

- 한** 없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신 세종대왕은
- 글** 자를 읽고 쓸 수 없는 백성들의 한을 아시고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 날** 로 한글을 깨치는 백성들을 보시며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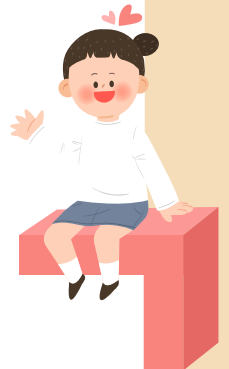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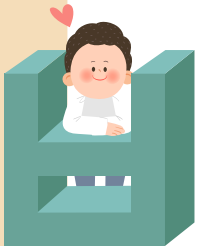
장★지(2227)

- 한** 글을 써보면 안다
- 글** 자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가 있을까.
- 날** 님아 더 이쁜 한글



이★정(3738)

- 한** 글이 있어서 이렇게
- 글** 도 쓰고 말도 하고, 세종대왕님께
- 날** 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 #추석

박★범(3285)

- 추 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 석 양이 지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니 우리 함께 소원 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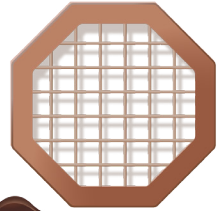
한★희(9324)

- 추 카해요, 이번 진급~
- 석 식 회식에서 한잔해요.



이★속(2413)

- 추 억을 쫓아 도착한 여고 시절 수학여행지, 경주!
- 석 굴암, 불국사는 그대로인데 그 시절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 #코스모스

이★선(2795)

- 코 에 달을 듯 먹는
- 스 파게티, 토핑은 역시
- 모 름지기 치즈 추가
- 스 으스스 비버 먹으니 행복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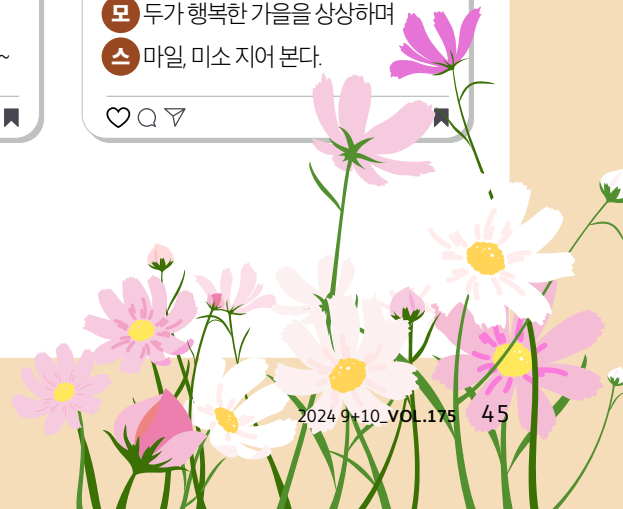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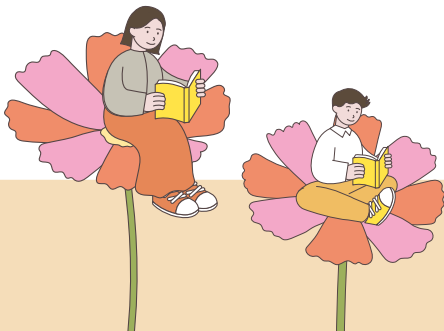
강★훈(5152)

- 코 인 노래방에서 저는
- 스 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 모 모랜드의 뽀뽀를 불러요
- 스 얼레어(설레어)~ 너와 나의 랑데부~



이★임(7498)

- 코 스모스 한들한들 아름다운 모습에
- 스 르르 눈을 감아 본다.
- 모 두가 행복한 가을을 상상하며
- 스 마일, 미소 지어 본다.



## 독자 마당

### 독자 후기

7+8월호 '클릭! 인사이트' 코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름 전력 peak 시즌을 대비해 봄철 준비하시는 내용과 전력량의 31%를 차지하는 원자력까지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 체계에 대한 발전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 홍★호(0757)

7+8월호 '그뎌 그랬지'를 읽고 옛 바캉스의 의미는 퇴색하고 호화로운 휴가가 등장했지만 나이 든 분들은 70~80년대의 피서문화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피서다운 피서였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피서문화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엄청나게 변화해 왔음을 엿보았습니다.

- 박★영(7526)

'지금은 뉴노멀 시대를 읽고 도파민 파밍에 대처해 이제는 의식적으로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해 나간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현명한 판단과 절제된 습관으로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깨달았습니다.

- 우★형(7526)

### 7·8월호 스도쿠 문제&정답

			1					
9				3	4			8
6	7		5				2	1
			1	3		7	8	
	1	5				2	4	
	4	7		6	5			
7	5				6		1	4
1		2	4					9
				9				

5	8	4	9	1	2	6	3	7
9	2	1	6	7	3	4	5	8
6	7	3	5	4	8	9	2	1
2	9	6	1	3	4	7	8	5
3	1	5	7	8	9	2	4	6
8	4	7	2	6	5	1	9	3
7	5	9	8	2	6	3	1	4
1	3	2	4	5	7	8	6	9
4	6	8	3	9	1	5	7	2

### 7·8월호 스도쿠 당첨자

강★규(7604)	김★화(1602)	김★영(4096)	이★윤(9115)	김★지(4731)	전★빈(4618)	김★국(3208)	주★영(8230)
박★진(9763)	최★석(9852)	송★한(1994)	노★애(6036)	심★옥(2310)	김★태(8311)	유★열(1662)	이★남(7166)
이★우(6975)	곽★영(1309)	이★홍(2690)	김★희(3838)	장★수(5571)	김★욱(1834)	조★형(3095)	도★석(3478)
최★은(7887)	서★은(0968)	조★재(8373)	신★인(4845)	이★근(2376)	원★현(9877)	배★리(2772)	윤★준(7422)
곽★준(8613)	이★훈(3867)	김★후(3746)	이★연(3830)	김★혜(4097)	정★영(2467)	김★지(8877)	주★정(5056)
박★하(9039)	최★환(9601)	송★희(1754)	우★오(3229)	오★연(5438)	곽★현(1309)	유★범(9107)	조★연(8732)

##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응모 기간 상시 모집
- 📍 당첨자 선물 커피 상품권
-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원고를 보내주실 때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원자력연료>에서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따스한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 <원자력연료>와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원자력연료>는 사내 문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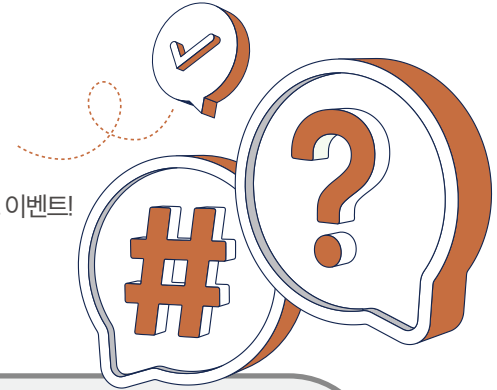
소통 증진을 위해 독자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①

## 해시태그 이벤트

KNF매거진 <원자력연료> 독자 여러분을 위한 해시태그 이벤트!  
주제어로 지어본 N행시, 주제어 관련 사진과 사연을  
편집실(songji@knfc.co.kr)로 보내 주세요.



11+12월호 주제어

# #연말 #크리스마스 #동지팔죽

②

## 두뇌 운동에 좋은 SUDOKU 게임

스도쿠는 가로 9칸, 세로 9칸으로 구성된 표에 1~9의 숫자를 채우는 게임입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완성한 결과지를 사진 찍어** 편집실(songji@knfc.co.kr)로 보내 주세요.



- 📅 마감 기한 2024년 11월 24일까지
- 🎁 당첨자 선물 1만원 커피 상품권
- 📢 당첨자 발표 11+12월호 독자마당 페이지
-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응모하실 때는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2		4					3
	3	1		8				2
7		5			3			6
				7			8	
1	7						3	5
	4			3				
3			7			4		1
8				1		2	6	
6					4		5	

# Looking back into our root

'명절과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